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평일 강화·휴일 완화

평일 단속 시간 지역별 최소 30분~최대 3시간 늘어
점심시간 단속 유예 행정시장 재량권 기준보다 확대

제주도가 전 지역에서 평일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 시간을 늘리는 한편, 제주시와 달리 휴일에도 단속이 이뤄지던 서귀포시 스쿨존에선 단속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주정차 처리 관련 지침서'를 이같이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지침에 따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평일 단속 시간이 지역별로 일제히 늘어나는 등 평일 단속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

지역과 읍면지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돼 기존(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보다 3시간 연장됐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다. 이번 지침에 따라 서귀포시 동 지역 스쿨존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돼 기존(오전 8시~오후 8시)보다 1시간 30분 단속 시간이 늘어났고, 읍면지역의 경우 기존(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보다 30분 증가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가 단속이 진행된다.

반면 학교가 문을 닫는 휴일에는 단속 시간이 소폭 줄어든다.

제주도는 제주시의 경우 지금처럼 휴일에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서귀포시 지역 스쿨존에 대해선 단속 시간을 기존(오전 8시~오후 8시)보다 3시간 줄여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한다.

제주도는 각 지역에 확보된 주차면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스쿨존 단속 시간 및 유예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다. 도는 서귀포시 지역에서 제주시에 비해 휴일 단속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조정했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처리 지침을 개정하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 기준도 변경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전용 차로 구간과 공항 주변 등 특별관리지역과 간선도로를 제외한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대해선 각 행정시별로 시장 재량에 따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불법 주정차단속 유예를 허용해오다 이번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도 시장의 단속 유예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관리지역과 간선도로는 여전히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제외 조치가 유지되고, 편도 3차로 도로 대부분은 간선도로"라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도로는 편도 2차로와 3차로가 중첩되는 일부 구간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제18대 제주도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출범
공약실천계획안 심의 후 도민평가단 거쳐 10월 확정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이하 공약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을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정리하는 공약추진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지난 2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약 실천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 공약추진위원회와 도민평가단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약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공약추진위원회는 도민평가단 심의에 앞서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기구로 이번에 처음 구성했다.

공약추진위원회에는 교육·환경·생태·마을 활동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외부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예산, 교육 과정, 인공지능(AI)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공약사업 추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게 될 내부 위원 5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위원장은 제18대 제주도교육감 인수위원회인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박희순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부위원장은 김명기 전 제주교육박물관장이 각각 선출됐다.

공약추진위원회는 이달 26일 2차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공약실천계획안은 오는 9월 도민을 대표해 무작위로 꾸릴 '도민평가단'의 세 차례 회의를 거쳐 10월 교육감이 최종 확정해 생태·마을 활동 등 분야별 전문가

전선희기자

'석주명 나비길' 새단장
생태관광 명소 재도약

나비박사 석주명을 기리는 '석주명 나비길'이 새롭게 단장돼 생태관광 명소로 재도약한다.

서귀포시 영천동은 지역의 생태 탐방로인 석주명 나비길 정비사업을 완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곳은 석주명 선생이 제주에서 2년간량 머물며 나비를 채집·연구하고 제주어를 조사했던 지역적 의미를 담아 2014년에 조성됐다. 돈내코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자연과 생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표 탐방로다.

영천동은 탐방로 조성 후 10여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올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영천악 둘레길 코스 정비를 비롯해 노후시설 교체, 전망대 확장, 포토존 조성 등을 추진했다.

석주명 나비길은 돈내코 주차장을 출발해 돈내코 목재 데크길과 영천악 대나무숲길, 수령 200년이 넘는 구실잣밤나무, 영천악 정상 전망대와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백금탁기자



한뼘의 그늘도 고마운... 24일 제주시 노형동 횡단보도 그늘막 밑에서 시민들이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동백동산 습지 국가 생태관광지역 재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평가 통해 5회 연속 유지 결정

제주 조천읍 선혈1리 동백동산습지가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위를 5회 연속 유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백동산습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위를 2028년까지 이어가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 키우는 제도다.

도내에는 동백동산습지를 비롯해 저지리 꽃자왈과 저지오름, 평대리, 효돈천과 하례리, 치유호근마

을 등 5곳이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시 조천읍 선혈꽃자왈에 속한 동백동산습지는 2011년 탐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 2013년 처음으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2013년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도입된 첫해이다.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마다 성과 평가를 거쳐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오피스텔 단속하니 체납차량 '수두룩'
제주시, 7~8월 특별단속 번호판 331건 영치·예고

제주시가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았던 오피스텔 주차장에 대해 최근 두달간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태 적발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7~8월 지역의 오피스텔 주차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납차량 특별단속에서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징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동과 노형동, 기타 지역 등 지역 내 179개 오피스텔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았던 오피스텔 주차장이 고집·상습 체납자의 은폐 공간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95건(1억4755만5000원), 영치 예고 190건(7045만1000원), 관외차량 징수촉탁 46건(3701만5432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하 체납차량에 대해서

는 영치 예고서를 부착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오는 9~10월 책임보험 미가입한 외국인 소유차량이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불법명의 차량을 중점적으로 추적해 적발, 공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4~2026년 7월) 연도별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4년 53억5600만원 ▷2025년 50억1600만원 ▷2026년 7월 기준 34억3700만원이다. 올해 전체 체납액(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취득세·기타) 312억6100만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 비율은 11.0% 수준이다. 2024년과 2025년도 15.1%와 13.6%로 적잖은 실정이다.

이 기간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은 ▷2024년 2452대·17억5100만원 ▷2025년 2671대·22억6800만원 ▷2026년 7월 기준 944대·16억5900만원 등이다.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액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민세 등 전체 체납액이 포함된 수치다. 또한 최근 3년간 38건·1억7000만원에 대한 자동차 공매처분이 이뤄졌다.

백금탁기자

2026

국비 지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훈련생 모집

요즘 뜨는 AI부터 실무 기술까지! 원하는 실무 역량, 국비 90% 지원

신청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누구나
- 취준생부터, 이직 희망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다양하게
- 제주 현장 교육 참여 가능한 자

*지원 제외 대상 별도 확인 필요

개설 과정

AI 콘텐츠	AI 마케팅 자동화 (ChatGPT-Gemini)	(예)원직업전문학교 064-742-9175
	AI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앙컴퓨터직업전문학원 064-742-9175
드론 항공	AI 브랜드 상품기획·판매페이지	(예)위니브 070-8656-2949
	AI 디지털콘텐츠 (Figma-Carva)	드론항공평생교육원 064-783-0691
설계 3D	드론 정비 유지보수	스카이꿈에듀교육원 064-713-1919
	드론 배송 (스마트물류)	(예)제주도드론 064-794-9530
기술 자격 실무	3D모델링 (CAD·블렌더)	(예)제주직업전문학교 064-725-5546
	건축CAD + AI 융합설계	제주직업능력개발학원 064-726-0076
	AI 호텔디저트 개발	한라(재)재방학원 064-722-7779
	기계설비 유지관리 (에너지)	제주건축기술학원 050-0405-5259
	조경 (녹색 정원사)	

신청 방법

- 고용24 접속 (work24.go.kr)
- 회원가입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산내특(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검색
- 제주 지역 훈련과정 선택 후 신청

문의: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064-757-2165

전체 과정 보기

바로 신청